

장성군 '효도권 사업' 전국이 주목

65세 이상 매달 목욕·이미용 업소 이용 쿠폰 3장 지급 만족도 99%... 벤치마킹 잇따르고 이재명 시장도 극찬

‘실버복지 1번지’인 장성군의 대표 정책인 ‘효도권’ 사업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SNS’를 통해 장성군의 효도권 사업을 극찬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효도권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98.9%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 15만원씩 쿠폰을 지급하고 목욕, 이발, 미용을 할 수 있게 했더니 병이 덜 난다고 합니다. 전국에 확대하면 좋을 듯”이라는 글을 올려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장성의 효도권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장씩 지급하고 있는 바우처 쿠폰으로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다.

효도권 사업은 민선 6기 유두석 장성군

수의 핵심 공약으로, 처음에는 노인들에게 매달(7~8월 제외) 두 장의 목욕권을 지급해 왔으며, 2015년 2월부터 이용 가능 업소를 이미용 업소로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두 배로 확대했다.

효도권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거의 ‘만점’에 가깝다. 효도권 이용자인 65세 이상 노인 1182명(남성 528명, 여성 654명)을 상대로 지난 2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98.9%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군의 효도권에 대한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효도권 사업을 벤치마킹 한 뒤 올해부터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성군은 효도권 지원 외에도 현대식 공공실버주택 건립, 토방 낚춤 사업, 경로당 에어건 지원 등 선진 실버복지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장성지역 어르신들이 지역 내 미용실에서 효도권을 이용해 파마 등을 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효도권 사업은 어르신의 청결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소 협약률이 92%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장성군의 대표적인 수요 맞춤형 정책”이라면서

“지속적인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실버복지 정책을 발굴·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남원 '닭피마을 숲' 국가산림문화자원 지정

200년 된 느릅나무 등 역사적 보존 가치 높아

562년 된 전북 남원의 닭피마을 숲이 국가산림문화자원으로 지정됐다.

산림문화자원은 정부가 역사적 보존 가치가 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숲이나 나무, 표석 등을 말한다.

닭피마을 숲은 1455년 순흥 안(安)씨 조상이 낙향해 마을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졌다.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키겠다며 낙향했다고 한다. 마을 옆을 흐르는 섬진강의 홍수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보습림, 북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는 방풍림 역할을 하도록 조성됐다.

풍수지리학적으론 마을의 기를 보강해주는 비보(裨補)림 기능도 있다고

한다. 56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당시 숲은 나무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는 100~200년 된 느릅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70여 그루가 숲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년 된 느릅나무와 팽나무 한 그루씩이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숲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씨 부인 열녀문도 있다. 숲이 아름답고 오래된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닭피마을이라는 이름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남원지역의 산림문화자원은 구룡계곡,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을 포함해 3개로 늘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체계적으로 보호해 생태관광과 산림문화 체험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

“학교 주변 위험 지역 우리가 표시해요”



부안군, 아동안전지도 제작

부안군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5개 학교와 함께 ‘2017년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나섰다.

특히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이 함께 참여한 아동안전지도에는 초등학생 및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병행해 폭력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시간도 갖는다.

부안군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영전·동진·행안·장신·변산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지도제작 시 청각 자료를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한 뒤 본격적인 제작에 나설 계획이다.

지도배부는 초안 지도에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8월 중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며 참여 학

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전교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 수호천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유년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애소한 신체조건으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이번 아동안전지도 제작으로 학생간 학교 주변 위험요소 등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뤄져 보다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명품 몸매 만들어봐요”

부안군, 몸짱명품클럽 운영

부안군보건소(소장 김달천)는 신체활동 부족으로 체지방률이 높고 만성질환 발병 우려가 있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걷기 운동 생활화를 통해 일상생활 신체활동량 증가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몸짱명품클럽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몸짱명품클럽은 오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2회(화·목요일 오전 10~12시) 실시할 계획이며, 만 19~60세 여성을 대상으로 에어로빅과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 등을 지도함으로써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성인 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5일까지 부안군 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063-063-580-3886)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등록회원에게는 건강증진 전문 운동사와 영양사가 운동 시작 전·후 체성분 분석 및 기초체력검사 결과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와 식습관 평가를 통해 개인에게 알맞은 올바른 식사요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정읍시, 광주서 씨 없는 수박 등 소비자 공략 나서

광주 하나로클럽서 특별판매 토마토 요리 시연 등도 진행

정읍시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광주지역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2일 광주시 소재 하나로클럽에서 정읍의 대표 농산물인 씨 없는 수박과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특별판매했다. 당일 현장에서는 씨 없는 수박(8kg 기준) 190통, 토마토(2kg 기준) 200박스, 방울토마토(5kg 기준) 200박스가 판매됐다.

부대행사로 수박화채 만들기와 수박 조각 전시, 토마토 요리 시연 등이 진행됐다. 또 이날 참가자들은 정읍의 농특산물 애용을 당부하는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대대적인 소비 촉진 활동도 펼쳤다.

행사에는 김생기 정읍시장을 비롯한 전북농협 지역본부와 농협 정읍시지부, 율예농협,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적극적인 농산물 판촉 활동에 구



김생기(왼쪽 두번째) 정읍시장 등이 지난 2일 광주시 소재 하나로클럽에서 정읍 대표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슬픔을 흘렸다.

정읍시는 농산물 판로 촉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매일 고품질의 제철 농산물을 선별,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판촉행사를 열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판촉 활동과 판로 개척, 유통단체 축소 등을 통해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소득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매/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층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마트 현대아파트매 매 19억9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온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인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연사무소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금대 장흥군 수문해수목장 3548㎡ 은행 1억3천 매도 3억7천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6800
- 시골주택 답답 봉산면 연동리 대지 952㎡ 주택 55㎡ 1억6천
- 담양군 창평면 일산리 730㎡ 전방출음 1억1400
- 함평군 송골면 월천저수지와 바다인근 대지 1197㎡ 4300만원
- 남평읍 우산리 대지 774㎡ 광주에서 15분거리 6700만원
- 해남군 송지면 순호리 땅 32454㎡ 팬션과 농장적합 5억
- 장성군 북이면 입암산빌 전과산 78197㎡ 전원주택지 11억

투자·매도·교환

- 장성군 남면 소재지 그린벨트 간나무밭 10958㎡ 투자에 양호 6억8천
- 독립선 56233㎡ 신안군 암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소촌동 자연녹지 1530㎡ 투자에 양호함 10억원
- 유동 상입지 331㎡ 상가·원룸 등 적합 매도 4억3천
- 월산동 보리아파트부근 상가기층 65㎡ 다용도임 6300만원
- 대인동 상입지 787㎡ 주상복합건물 적합 14억3천
- 서구 마북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적합 21억
- 담양군 수북면소재지 7971㎡ 소형아파트 적합 15억2천
- 화순읍 북촌아·매실·간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총장로5가 상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5천

상가건물

- 월산동 대지 160㎡ 건물 419㎡ 4층임 전세3천 월300선 5억7천
- 월산4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상당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서구 교동요지 대지 1657㎡ 건평 7768㎡ 요양병원등 적합 49억
- 월산동 농성초교내면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감정가 이하

-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5813㎡ 투자에 양호 2억원
-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4137㎡ 감정 2억5200 은행 1억7600 매도 1500
- 무안군 청계면 자연녹지 47622㎡ 공시가 10억2백 매도 9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1969㎡ 투자에 좋음 7200만원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광양, ㄷ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라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6억 5천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